

백운향배포 지역장님을 소개합니다.

백운향 선교를 담당하는 수고에 감사



평동 김경자장로, 백운주택김도문집사, 재현 김홍순권사, 매촌 박창일권사, 모정 서옥임권사



원서 신정옥권사, 평동 안종오집사, 평동 염순성도, 새마을유인희권사, 소월 이수근권사, 애련 이순희권사, 평동 이영애권사



응평 이수길권사, 뒤뜰 임옥실권사, 평동 임현숙권사, 별말 장순희권사, 가정 조영숙권사, 방학 최홍자권사, 대월 한영애권사

“ 아름다운 당신들의 놀라운 능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

백운교회 소식

▶제천시지방 한마음축제

지난 26일(주일)오후 충북연회 제천시



지방 평신도 한마음축제를 제천시내체육관에서 가졌다.

▶연회 시무장로, 원로장로 수련회

지난 17일(금)~18일(토) 충북연회에서 지역 시무장로, 원로장로를 모시고 수련회 및 위로회를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가졌다.

▶필리핀 중학생 해외연수

여름방학을 이용해 본교회 중학생 해외연수를 18~30일까지 사이판에서 실시한다. 참가자는 윤준성, 윤준혁, 조민기, 신나라.

백운 지역 소식

▶교회부설 하늘샘심리상담센터운영

교회부설 하늘샘 심리상담센터가 개소됐다. 교회 및 지역의 가족, 부부, 청소년, 개인, 집단상담 등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백운면 문화센터회관 개관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문화센터의 6월말 개관 예정일이 7월로 미루어 졌다.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 받으면서 자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백운교회도 함께 복을 나누는 교회이기를 빌면서 보내주신 선교비로 2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의 편지, 평화의 큰 바다 너머로 전합니다. <조영훈,최혜경선교사>

멕시코 선교사 통신

너은 평화의 바다너머 말썽의 손길이

멕시코의 제일 구석 국경도시의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씩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가 되어 크고 넓은 평화의 바다를 건너 달은 여기는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은 곳이다. 종종 사람이 죽고, 도시의 아침 신문을 열면 지난 밤에 쌓여 있던 사건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후두둑 떨어 지는 곳이다. 여기에 살면서 십 년이 되도록 땅 한 필지 사고, 예배당으로 쓸 건물을 하나 지었다. 처

아이들 책 읽는 동안에 함께 있던 엄마들과 그 아이들이 아빠를 불러 주일에 온다. 그렇게 동네교회가 되었다. 설교자는 스페인어를 잘 못하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찾았다. 그래도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각자 집에서 준비해 온 밥을 나눠먹는다. 그래도 새로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지난 봄에는 중학생 네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가을

에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중학생 여섯 명, 고등학생 네 명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데 교회가 함께 독려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우리는 지금 동네교회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땅끝인지, 아니면 더 땅끝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여기에 초막을 짓고 싶은 마음만 없었으면 싶다. 지금 우리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늘 우리가 자라던 옛날 우리교회가 생각한다. 거기에서 저질렀던 말썽과 맘 넓은 용서, 그리고 넘치게 받았던 두툼한 사랑이 여기에도



음에는 예배당에서 영어교실을 시작했다. 곧 아내가 피아노반을 만들고, 책을 사모아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거기에 내가 기타교실을 하나 더 하니 동네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에 찾아왔다. 먼저 아이들이 오고, 엄마들을 알게 되었다. 이 동네에서는 우리 내외를 모두들 “또마스”와 “아나”라고 부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주일에 예배한 것이 일년이 되었다.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동네사람들이다. 원래 예수 믿던 사람도 있고, 천주교인인데 오랫동안 다니지 않던 사람도 있다. 아이들 피아노교실에 데려다 주고, 영어교실에 보내고, 도서관에



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세기 5장 3절) (숨은그림 : 펼친책, 깔때기, 딱지, 모자, 바다표범)

7월호 숨은 그림찾기 응모권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7월 31일 마감/추첨) <숨은 그림 : 펼친책, 깔때기, 딱지, 모자, 바다표범>

Table with 2 columns: 이름 (Name), 전화번호 (Phone Number)

박달재전통시장 7월 행사예고

7월16일 : 어린이 시장체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1일 토요일 장터를 이용하여 없어지는 우리의 물품들을 판매해 수익과 경제를 배우는 기회.

매주 토요일 토요일 장터 매대당 2만원 지급(오전10시~오후 3시까지).

7월30일 : 박달재 여름축제 / CJB노래자랑 / 맨손 메기잡기

맨손메기잡기(오후 1시) 1등 3명(각 10만원) *참가비 5,000원(1인, 장갑, 양파망 지급) 노래자랑(오후 3시) 지역주민 및 방문 고객 참가자 14~16명. 초대가수:김수희외 다수. 참가자 CJB에서 상품증정

6월호 정답자 발표

추첨결과 ▶안중숙(원서)▶김경자(평동)▶정순구(평동)으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2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상)맨손메기잡기(중)노래자랑(하)매대운영